

에저또 바다 소극장 개관 기념
6인의 연출가전 3탄



죽임! 연습?

■ 원제 / 왕은 죽어 가다

이오네스코 / 원작
이성규 / 연출

97.11.20 ▶ 12.10

평일 8:00 토/일 4:00, 7:30 월요일은 공연이 없습니다.

에저또 바다 소극장

문화공간 연당 소극장의 문화후견인을 모십니다.

문화공간 연당소극장과 친숙한 이웃이 되고, 문화인이 되시는 길은 문화후견인이 되시어 적극적인 관객이 되시는 것입니다.

◆ 정기 관극 회원이 되십시오.

모든 공연의 입장료와 각종 문화 강좌의 강습료를 30%할인 받을수 있으며
안내 및 홍보자료를 현장에서 무료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 가입비 및 연회비 ; 3만원

◆ 후원 회원이 되십시오.

- 일반 후원회원

- 후원회비 ; 10만원
- 1년간 매 공연 및 행사시 초대권 2매 및 공연 인쇄물을 보내 드립니다.

- 특별 후원회원

- 후원금 ; 50만원
- 5년간 매 공연 및 행사시 초대권 4매 및 공연 인쇄물을 보내드립니다.

- VIP후원 회원 (영구회원)

- 후원금 ; 100만원
- 매 공연 및 행사시 VIP회원 카드에 의하여 가족 동반 및 VIP로 모십니다.
- 모든 공연 인쇄물을 보내드립니다.

※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후원금은 동남은행 018-11004-721(예금주;이성규)로
온라인 송금해 주시고 Tel.556-2232로 연락 주십시오.

부산/양산

아름다운 사회건설

고차로



우리들병원 척추레이저클리닉

제작 개요



— 기획 —

연당소극장

— 원작 —

E.이오네스코

— 연출 —

이성규

— 제작 —

무대감독/하현관

무대미술/박경

음악/이반

조명/고민수

의상,소품,분장/이진경

소품제작/김나영

조연출/류영운

기획/정혜경

97.11.20 ▷ 12.10

평일/8시, 토·일요일 4시/ 7시30분

에저또바다 소극장

• 문의: 556-2232 연당 소극장 기획실
611-0505 에저또바다 소극장

기억해야 할
"고통"을 보여주는 연출가!

방 태 수

연출가
극단 에저또 대표

나로서는 부산이 제 2의 고향이기도 하다. 함경도 북청에서 태어나 해방후 월남하여 6.25 피난 시절을 부산에서 보냈으며, 국민학교를 부산에서 다녔다. 그후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가족들이 모두 부산에서 살았고, 대학 졸업 때쯤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하였지만 본적은 부산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고향은 이북이라기 보다는, 어린시절을 다 보낸 부산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많은 시간을 서울에서 연극과 함께 살았고, 이제 마음의 고향인 부산에 부산예전 영연과와 함께 동지를 텃다. 부산에 와서 아무 연고없이 만난 첫 번째 연극인이 연출가 이성규였다. 94년 10월이었을까. 어떤 한 사나이가 나를 찾아왔다. 소극장을 만들었다고, 쉬지않고 전문연극을 해보겠다고 눈에 핏발을 세우며 무서운 게 없다는 듯이 나에게 강변(?)하고 있었다. 나는 대뜸 그에게 말했다. "돈이 많으세요?" 많은 소극장을 만들었다가 문을 닫았던 내 경험으로 또 하나의 님은 몽상가를 만난 셈이었다. 그는 내 말을 무시하듯 대답했다. "돈으로 연극합니까?" 열정으로 하는 거지요."라고 대답했다. 그가 바로 연당소극장을 만든 연출가 이성규였다. 나는 몇번인가 그의 연출 작품을 관람하였고, 젊은 식솔들과 함께 악전고투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리기도 했다.

연출가 이성규는 70년대에 대학 연극부에서 연극을 시작한 이래 <건축사와 앓시리 황제>, <달라진 저승>, <에쿠우스>, <고도를 기다리며>, <로리타> 등의 작품이 있으며, 주로 인간 실존문제를 집요하게 천착하는 작가의식을 가진 연출가이다. 또한 그는 부조리극, 서사극, 초현실주의극의 형식을 두루 실험하는 등 무게있는 작품의식을 보여주는 중견 연출가이기도 하다.

나는 누구보다도 그를 마음열고 만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것은 떠들썩하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인간적 매력도 있지만 그의 작품 연출에서 보듯이 자기 고통을 작품속에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결코 쉬운 방법으로 연극을 하지 않으며, 오락과 상업을 위해서 연극을 하지 않으려는 오기와 고집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를 이 시대의 소중한 연출가로 자리 매김하자는 것은 그의 연극에 대한 고통이 이 시대에 기억해야 할 고통이기 때문이다. 연출가 이성규의 고통을 에저또 바다소극장에 초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연당소극장 1997년 하반기공연

〈죽음! 연습?〉을 준비하면서

연당소극장의 3년간의 준비기간이 〈죽음! 연습?〉을 통해서 마감됩니다. 그래서 〈죽음! 연습?〉 통해서 마감됩니다. 그래서 〈죽음! 연습?〉은 3년간의 작업의 완결판이 될 것입니다. 연당 소극장은 3년동안 줄곧 새로운 연극 형식에 대한 탐색과 인간의 실존문제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동안 연당을 지원해 준 평론가, 매스컴 관계자 여러분, 관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아류에 휘말리지 않으려한 우리 나름의 고집은 소외와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켰지만 일관된 성격과 방향을 가진 극단으로 관객들에게 각인되었고 "연당 연극"이란 유행어를 만들게도 되었습니다.

오락과 여흥으로서의 연극이 아닌, 인간적이며 본질적인 창조 행위로서의 연극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소비적이고 일회적인 문화풍토 속에서도 사유의 진지함과 고뇌의 감동을 추구하는 새로운 관객들을 개발하였으며, 어려운 연극도 고민하는 연극도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연당소극장에는 "연당 연극"을 좋아하는 고정 관객의 수가 현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차례의 폐관 위기와 상업적 유혹에도 불구하고 질곡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관객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덕분입니다. 애초 연당소극장은 지역연극의 여러 가지 한계와 불구성을 극복하기 위한 여건과 상황 조성을 위해 3년간의 준비기간을 설정하였으며, 3년후 본격극단으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연당소극장은 새로운 단체로 재출발할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3년 동안 상연하려고 한 공연 목록의 3분의 1도 다 못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성원을 보여준 관객 여러분의 정성은 지역 연극에 대한 애정때문이라 믿습니다.

연당은 드디어 부산 최고의 고정관객을 확보한 소극장으로 내년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죽음의 체험 ” 진정한 삶에의 대면

태어나면서 죽음을 잉태하는 인간은 삶이 곧 죽음이라는 아이러니를 운명처럼 지고 산다. 삶은 죽음의 과정이다. 그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관념이 아니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삶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이 직접 경험의 대상이 아니므로 회피와 망각의 대상으로 치부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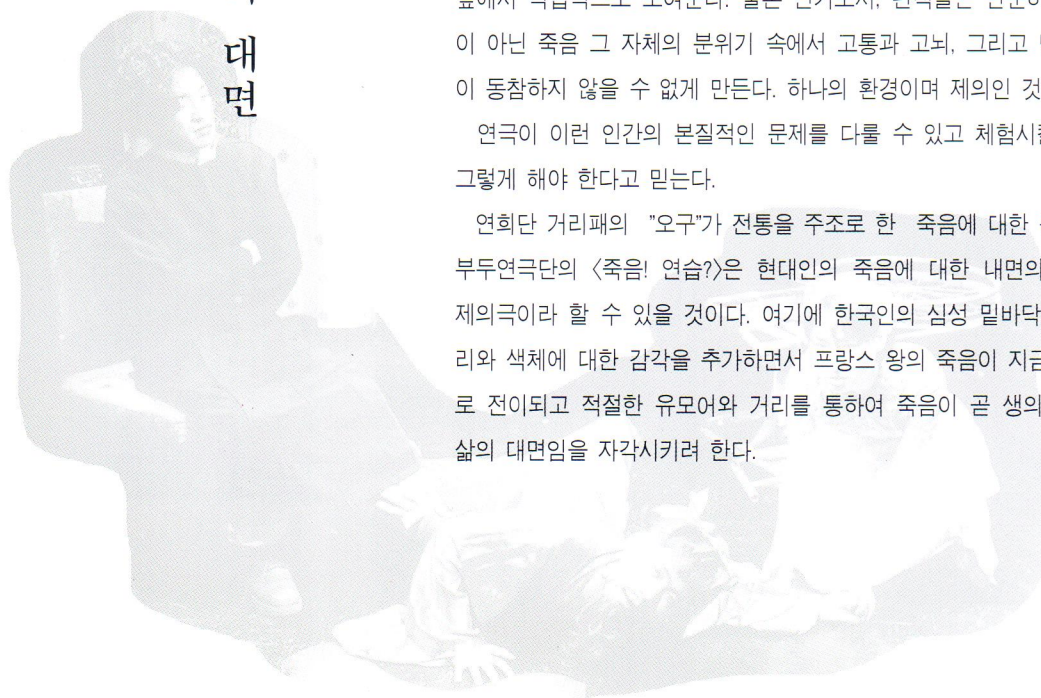
죽음의 문제를 은폐하고 죽음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것은 비실존적인 삶이다. 실존주의자들은 용기있게 죽음에 대처하라고 가르친다.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죽음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미를 내면화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진정 대면하는 것이며, 죽음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갖가지 망상과 오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성적 문란, 성 폭력 등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무지는 우리의 사회적 삶을 파괴하고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최근에 미국 교육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죽음학”학습의 열풍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연-습 (원제 ; 왕은 죽어간다) 은 죽음을 주제로 하고 죽음이 직접 체험의 대상이 되는 전무후무한 작품이다. 죽음의 체험이라니?

전통적으로 연극에서는 무대상에 죽음을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 시체는 무대뒤에 감추어 버리며 죽어가는 과정은 극의 결말에서나 또는 일순간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작품 <죽음! 연습?>은 한 인간의 죽어가는 과정을 1시간 30분동안 관객 앞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연기로서, 관객들은 단순히 이야기로서의 죽음이 아닌 죽음 그 자체의 분위기 속에서 고통과 고뇌, 그리고 명부로의 여행길에 같이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하나의 환경이며 제의인 것이다.

연극이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체험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연희단 거리패의 “오구”가 전통을 주조로 한 죽음에 대한 풍경적 놀이극이라면 부두연극단의 <죽음! 연습?>은 현대인의 죽음에 대한 내면의식을 대리체험케하는 제의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한국인의 심성 밑바닥에 있는 무속의식, 소리와 색체에 대한 감각을 추가하면서 프랑스 왕의 죽음이 지금 여기 이곳의 죽음으로 전이되고 적절한 유모어와 거리를 통하여 죽음이 곧 생의 한 과정이며 진정한 삶의 대면임을 자각시키려 한다.



1. 죽어가는 보통사람(현대인)의 심리적 불안과 육체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관객들과 함께 체험을 나눈다.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과 불안의식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속에 공통적으로 녹아있으며,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보편적인 무의식과 감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2. 죽음을 이야기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체험하고 참여시킨다. 그러므로 극장전체가 죽음을 체험하기 위한 환경이 된다. 등장인물들만이 죽음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물체, 소리, 빛 등도 죽음의 감각을, 죽음의 과정을 표현해야 한다. 관객들은 죽음의 주체이거나, 죽음의 제의에 같이 참석한 가족들이 된다.

3. 극의 결말로 오는 죽음이 아니라 시작이 바로 예정된 죽음으로부터 출발하므로 이 극은 자연스레 극중극, 제의극의 구조를 띤다. 죽어가는 과정이란 짧은 순간을 통해 일어나는 인간의 수많은 사념과 상상되어진 불안, 고통의 감각이 강박적으로 쏟아져나온다. 이 극은 주제도, 이야기의 진행도, 등장인물도 모두 죽음을 위한 기호가 된다.

4. 죽음에 대한 다양한 사념을 표현하고 또 체험을 공유하기 위하여는 세밀한 제의극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물에 어리는 죽음의 감각, 빛과 소리에서 느끼는 죽음의 감각 등이 총체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그것이 죽음의 어김없는 진행과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고픈 역행의 리듬을 통하여 더욱 더 증폭되어야 한다.

5. 이오네스코는 지독한 풍자가다. 그는 인간의 최대의 절망인 죽음까지도 유모어로 풍자한다. 과장과 부조화로 특징지어지는 그의 풍자가 없다면, 죽어가는 과정을 같이 나누는 심각한 순간에도 인간의 왜소함에 대해 터지는 폭소가 없다면.... 이극은 너무 불쾌하여 다들 자리를 뜰 것이다. 이 극도 역시 연당의 어느 작품과 마찬가지로 희·비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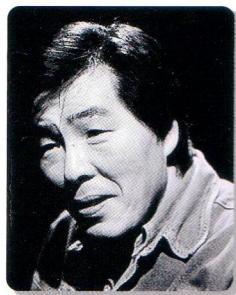
6. 무대(극장)는 모두 왕의 육체이며 왕의 마음이다. 무대는 또한 관객의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을 나타내며 왕은 관객과 동일시된다. 왕은 죽음의 핵심이며 실체이고 대상이다. 나머지 기호들은 죽음을 수놓는 무늬이다. 관객들은 왕이 느끼는 "죽음에 직면한 자의 심리적 불안과 육체의 고통"을 같이 느끼지 못한다면 이 연극은 실패한다. 그래서 왕의 연기는 죽어가는 자의 격렬한 몸짓을 그대로 체현해야한다. 특히 얼굴 표정과, 신체적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내공의 연기가 필요하다.

7. 그러나 이 연극은 극중극의 구조, 유모어, 왕실의 폐허상태, 자연재해 등의 비유법을 통하여 서사적 거리를 두고 있다. 체험과 거리의 연극적 방법론이 어디로 튈지 짐작키 어렵다.

8. 프랑스 왕실이 배경이나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도록 한다. 인물들은 국적 불명의 간단한 역사적 의상을 입고 왕실에서의 매너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은 현대인이다. 음악은 가능한 한 한국음악, 동양음악을 사용하고 무대장치는 동·서양이 같이 느낄수 있는 죽음의 분위기를 주었으면 좋겠다. 즉, 이 연극은 초 역사적, 초 시간적 연극이다.

9. 오구곳과 요가 및 선사상의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제의 장면에서는 적당히 참조된 곳의 몸짓을 안무한다. 즉 죽어가는 사람은 어쨌든 지금, 여기 이곳 극장에 온 사람들이다. 그들의 감각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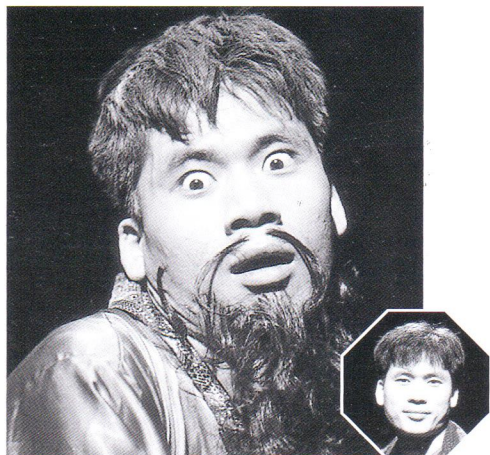
10. 다른면으로 본다면, 이 극은 죽음의 강박관념에 대한 사이코-드라마이다. 제 1자아(마그릿-죽음에의 본능)와 제2자아(마리-삶의 집착)가 동전의 양면처럼 무대상에서 충돌하는 사회적 심리극이다. 그러므로 무대상 환자인 왕과 무대밑 환자인 관객은 그들의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을 교류한다.



이 성 규

연출가
극단 부두 대표

CAST



왕 / 김종국



시의 / 오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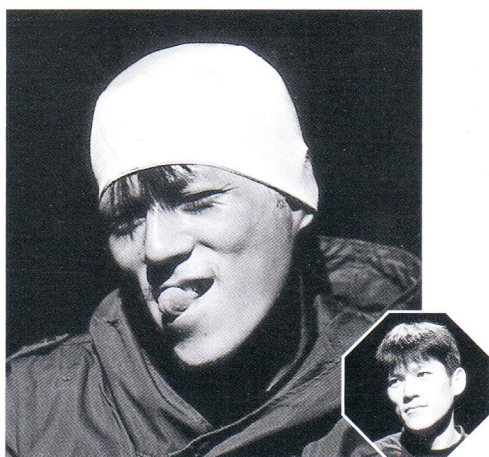
제1왕비 / 정혜경



제2왕비 / 엄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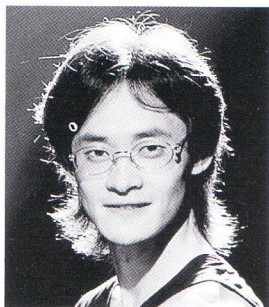


하녀 / 문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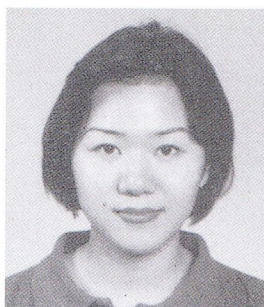


근위병 / 류영운

S
T
A
F
F



무대감독
하 현 관



소품
김 나 영



무대미술
박 경



의상,분장,소품
이 진 경



조 명
고 민 수

조연출 류 영 운

기 획 정 혜 경

음 악 이 반

진 행 송 지 연

임 원 석

〈부조리극의 이해〉를 위해



박형섭

교수
부산대 불문과

20세기 후반 부조리 연극의 탄생은 연극계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부조리 연극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연극적 표현이나 인습과는 다른 새로운 표현형식을 모색, 실천함으로써 기존의 연극에 反하는 “反연극적 특징”을 띤다. 이 “反연극”이라는 용어는 고전극이나 사실극, 낭만극, 심리극 등 전통극작술에 충실한 소위 “잘 만들어진 연극”을 거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지만 反연극의 의미는 조리에 맞지 않는 연극(부조리한 연극), 주인공이 영웅이 아니라 거렁뱅이, 인간성이 제거된 로봇, 우스꽝스런 개그맨 등이 등장하는 연극, 아름답고 시적인 문체가 아니라 말장난, 반복된 표현, 무의미하고 비문법적인 문장, 넌센스가 주류를 이루는 연극인 것이다. 무대장치 또한 텅빈 공간 내지는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모호한 곳을 나타내고 있다.

과연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왜 反연극작가들은 부조리한 상황을 재현하려고 애를 쓰는 걸까? 그 작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하나의 의문. 왜 동시대 유럽의 한 북판 파리에서 유사한 시기에 이런 스타일의 극작품들이 쏟아져 나온 걸까? 등등 무수한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결국 부조리극을 규명하는 작업은 이런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게 변하는 세상에 연극무대도 변한다는 평범한 사실이다. 즉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인간의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함으로써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의 감수성도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어찌 변한 세상, 변하는 세상을 낱고 고리타분한 문법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현대적 감각을 지닌 관객에게 그런 과거의 수법이 자극이 될 것인가? 새로운 내용은 그것을 수용할만한 새로운 그릇이 요구되는 법이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무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려고 창조가들은 노력하는 것이다. 이 노력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극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나며 가장 효력이 있다.

또한 〈부조리 연극〉은 대량살상을 경험한 20세기 동시대 인간의 고통과 삶에의 조건들이 철학적 이데올로기로 위안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발한다. 기계적인 과학문명의 진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고독과 죽음의 문제, 물질에 억눌려 피곤한 나날을 살아가는 나약한 인간의 군상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들끼리도 소통이 되지 않는 언어의 한계 등은 이 연극의 전반적인 구조가 된다. 다시 말해서 서구사회에서 그동안 절대적이었던 신의 죽음, 무신론 사상의 확산, 무력한 신을 대신할만한 또다른 절대에 대한 갈망은 인간정신을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 로봇과 유전공학의 비약, 컴퓨터의 발달은 점점 인간의 위치를 위협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그 삶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연극 예술도 엄존하는 이 현상을 결코 비켜갈 수 없는 것이다.

〈부조리 연극〉이 다룬 주제들은 오래 전부터 다루어왔던 주제들이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같은 내용이나 주제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운반하는 형식이나 수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즉 내용도 형식도 "부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위대한 극작가들 이오네스코, 베케트, 아다모프, 주네, 한트케와 같은 극작가들이 그러한데 그들은 부조리의 이념을 직접 무대적 현실로 물질화했다. 배우의 육성과 몸짓, 장치와 조명, 음향과 색깔 등 모든 무대적 재료들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게 된 것이다. 이런 구체적 현실들은 감춰진 부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부분 까지도 드러나게 한다. 부조리 사상이 부조리한 언어표현, 부조리한 등장인물, 조리에 맞지 않는 시,공간을 통해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때 관객들은 시청각적으로 물질화된 무대의 현실을 통해 삶이 얼마나 부조리한가를 눈과 귀로 확인할 것이다. 이 효과는 대단히 크며 직접적이다. 심지어 철학과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도 무대는 거리낌없이 드러낼 수 있다. 가령 인과율의 질서나 이성적 대화를 반이성적 담론이나 침묵으로 대체함으로써 인간언어의 타락한 모습을 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효과를 노리는 연극이 〈부조리 연극〉인 것이다. 역설적인 하지만 이 현상은 우리가 오늘날 늘 신문지상이나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접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무수한 말들의 유희, 빈껍질만 남은 정치가의 말, 아나운서의 거짓 보도, 반복된 광고,...

바로 여기에 〈부조리 연극〉의 심오한 물음이 있다. 이 부류의 작가들은 끊임없이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며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려고 한다. 새로운 세상을 표현하는 언어가 새로워야 하듯 새로운 표현기호는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거나 감지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열린 세상을 지향하는 예술가들의 창조 정신이기도 하다. 〈부조리 연극〉의 의의는 그 점에 있으며 이율배반적인 인간과 그러한 세상, 언제나 반복되는 존재들의 무의미한 삶의 현존이 지속되는 한 〈부조리 연극〉은 공연될 것이고 거기에 참가한 관객은 존재의 심오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

사람은 각자 우주의 중심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던가?

그가 죽는다면 아무것도 소용없다. 가족도 이웃도 국가도 문명도 역사도 사라지는 것이다. 모든것의 상실이고 종말이다. 우리는 모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애써 회피하거나 망각하려고 한다. 그러나 죽음은 분명한 것이며 거역할 수 없는 진리다. 여기서 거역할 수 없는 죽음에 직면한 한 인간의 내적 드라마가 펼쳐진다.

작품은 죽음의 과정에 대한 심리와 현상을 보편적으로 공감케하기 위한 다양한 연극적 수법을 동원한다. 하나의 극중극이며 제식의 형식으로 구현되는 이 죽음의 체험은 어김없는 시간적 진행과 그것에 대한 저항, 이탈의 심리적 과정을 순환하면서 이루어 진다. 죽음 그 자체는 분명 입장과 견해에 따른 주관적 이해에 머물러 있지만 죽어가는 자의 신체적 심리적 과정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어느정도의 보편적인 이해에 도달한 것 같다.

사람들은 그들의 배경, 신념, 성격에 따라 죽음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 1) 제 1단계 : 충격과 부정의 단계
- 2) 제 2단계 : 분노의 단계
- 3) 제 3단계 : 흥정하는 단계
- 4) 제 4단계 : 우울의 단계
- 5) 제 5단계 : 수용의 단계 의 5단계의 심리적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한다.

죽·음·연·습은 이렇게 죽어가는 자의 의식의 분화 및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관객들은 직접 죽지 않고(?) 대신 죽어가는 사람의 내면적 체험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로서의 죽음이 아닌, 체험으로서의 죽음이란 기상천외하고 독특한 경험을 할 것이다.

관객의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대장치와 조명은 육체의 쇠락, 죽음의 풍경을 서서히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등장인물들을 살아있는 개성이 아니라 왕의 죽음을 주조하는 이성, 감각, 감정, 신경 및 운동기관, 잠재 의식 등의 분신의 역할을 하면서 거대한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게 할 것이다. 관객들은 극장 입구에서부터 마련된 죽음의 축제에 초대된 조문객일수도, 죽음의 당사자일수도 있으며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환경무대를 전율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한국인의 심성 밑바닥에 있는 무속의식, 소리와 색체에 대한 감각을 추가하면서 프랑스 왕의 죽음이 지금 여기 이곳의 죽음으로 전이되고 적절한 유모어와 거리를 통하여 죽음이 곧 생의 한 과정이며, 진정한 삶의 대면임을 자각시키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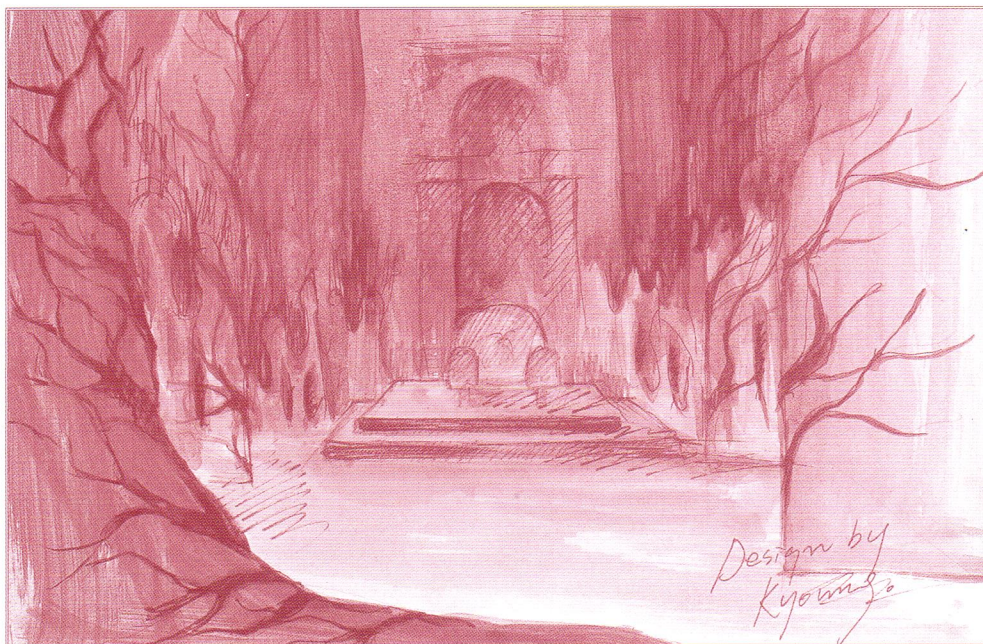
연당소극장 3년

행 사 명	분 야	기 간	내 용
유진규네 [몸짓]	판토마임	94.11/4-6	개관기념 기획시리즈
극단 청우 [에쿠우스]	연극	11/11-27	개관기념 기획시리즈
영화와 연극과의 만남전	영화	11/30-12/6	개관기념 기획시리즈
극단 서낭당 [남도들노래]	1인극	2/9-27	개관기념 기획시리즈 출연:심우성
극단 그린씨어터			
[살전소파에 대한 일기]	연극	12/13-22	개관기념 기획시리즈
노현정의 춤	무용	12/27	
에니메이션 영화제 영화		95.1/3-9	여섯편(한국단편,체코단편,천공의성라퓨타 등)
제1회 관객을 위한 연극교실	강좌		강사:이성규, 허정숙, 김준기, 윤선희, 정봉석
제1회 work shop공연	연극	1/14-27	[꿈먹고 물마시고] 이근삼 작/김준기 연출
제1회 연당 오페라 감상회	영화	1/26-27	오페라:라트라비아다, 리골렛토, 사랑의 묘약등
제2회 연당 오페라 감상회		2/3-12	오페라:마술피리, 탄호이저, 라보엠, 나비부인등
교사극단 조명이 있는 교실		3/4-12	
[모자가 뭐길래]	연극	3/17-19	
		3/24-26	교사극단 창단공연
일본인형극단 [도라] 초청 공연	인형극	4/7-15	세편:원숭이접시돌리기, 할머니곰 등
인형극 제작 work shop			인형제작, 대본쓰기, 무대만들기
극단 일터 [철로역정]		4/25-29	
극단 부두연극단			
[고도를 기다리며]	무용	5/16-6/4	연당소극장 세계명작무대1
하야로비 현대무용단 공연	강좌	6/23-24	이미지1:허상.방, 이어도
제2회 관객을 위한 연극교실	연극	7/24-8/17	강사:김동규, 허은, 최정일, 김승일, 윤찬호, 이성규등
제2회 work shop공연		8/16-17	[뎃대로 생각하세요] 폴란델로 작/김만중 연출 데모스테스의 재판] 이근삼 작/박성진 연출
극단 때아뜨르 경성			
[왕은 죽어가다]	페미니즘 연극	9/29-10/8	연당소극장 세계명작무대2/청단공연
부산여성회 연극 모임		10/28-29	
[몽땅연필, 수채화 그리고]			페미니즘 연극
극단 부두연극단 [생일파티]		11/18-12/10	연당소극장 세계명작무대3
[죽이지도 않은자에 대한 책임]		12/20-26	부일 신춘문에 희곡당선작 공연
동그라미그리기			
[오즈의 마법사]	아동극	96.2/23-3/3	
제 3회 관객을 위한 연극교실	강좌	3/11-17	강사:이성규, 허정숙, 정순지, 김우진, 하현관
극단부두연극단 [일개는 남자]		5/24-6/16	연당소극장 세계명작무대4
극단부두연극단			
[심청이는 왜 두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연극	9/16-10/6	
하현관 무언극			
[문] [대사없는 일막]	무언극	11/11-17	
전문 청소년극단 눈동자			
[잘나가는 비디오테이프]	연극	97.1/18-26	
제4회 관객을 위한 연극교실	강좌	2/?	강사:유진규, 방태수, 이성규, 김인준, 권오진
교사극단 조명이 있는 교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라]	연극	3/1	
하늘벽 공연	연주		ROCK, METAL
극단 부두연극단			
[한도와 리스]	연극	3/10-21	
극단 처용 [돌아서서 떠나라]			
극단 부두연극단 [로리타]		4/10-30	
극단 처용 [돌아서서 떠나라]		5/16-25	
극단 부두연극단 [진흙]		8/23-9/13	페미니즘 연극
극단 레파토리시스템		9/20-28	
매카로 가는길		10/1-12	
BACKDRAFT 공연	콘서트	10/18	R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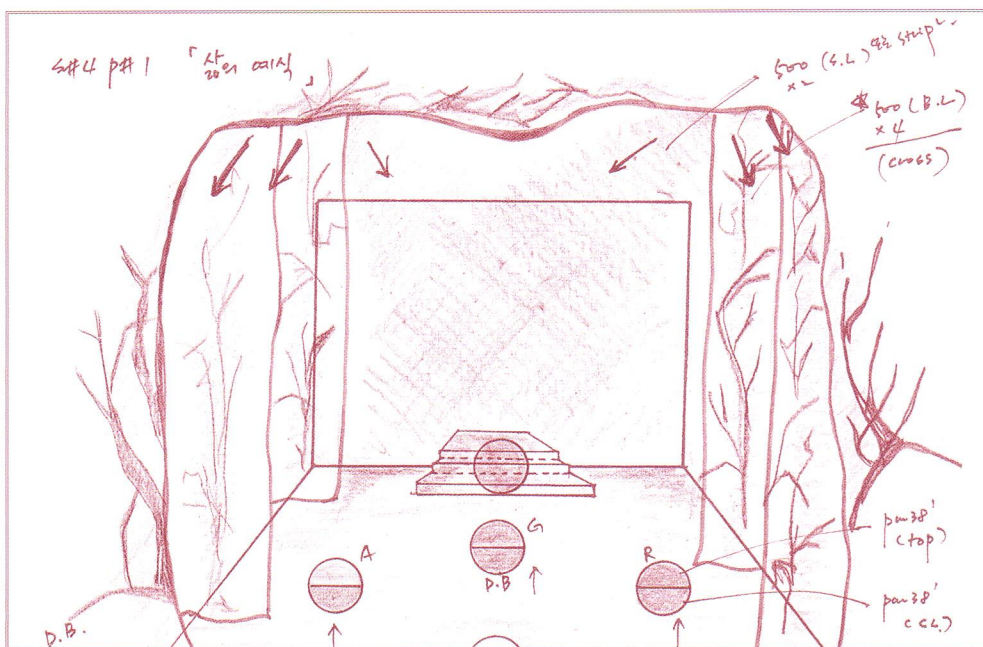


무대 스케치

이야기는 왕궁에서 죽음의 늪으로의 시간 · 공간 · 삼차원적 grouping에 의해 이루어진다.



조명 스케치



단 원 모 집

"문화공간 연당 소극장과 함께 할 새가족을 모집합니다"

- 모집 대상 ; 만 20세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녀
- 모집 분야 ; 연출, 조명, 연기, 음악, 미술, 장치, 의상, 분장, 및 연극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 (각종 예술분야 특기자 및 전공자 우대)

연극은 사랑의 열병처럼 헌신적이고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연극에의 길은 항상 어렵고 끝없는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연당소극장으로 개별 문의 바랍니다,

TEL. 556-2232 (연당소극장 기획실)

극 장 사 용 안 내

연당소극장은 다양한 문화행사는 물론이고 각종 공연 및 시민들의 모임,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문화 공간입니다.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평 일	토 · 일 · 공휴일
오 전	5만원	7만원
오 후	5만원	7만원
야 간	10만원	12만원
합 계	20만원	26만원

지금 바로 전화로 예약하십시오!

연당소극장
문의. 556-2232

